

제6강: 이데아론의 태동, 결핍과 동적 목적론에 대하여

◆1교시: 동일률,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것, 임재

▲ 동일률에 대하여

이 대화편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운다는 말을 둘러싼 얘기고, 두 번째는 존재와 인식을 둘러싼 것이고, 세 번째는 거의 뭐 그야말로 말장난 같은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293부터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앞서서처럼 굵직한 주제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난장판 같은 논의가 전개됩니다. 박홍규 선생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해봅시다.

회람철학 논고의 110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목부터가 그렇죠. 궤변이 이루어지죠. 앞서서의 두 사람의 대화, 에우티데모스와 디오니소도로스가 하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말을 많이 하니깐 소크라테스가 소리를 버럭 지르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뒤에 가면 앞에 보다 더 막가와 논의로 갑니다. 논의가 막 뒤엎히고 코미디처럼 됩니다. 에우티데모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당신은 이미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미 참된 정치술을 알고 싶다고 희망을 표현하자 에우티데모스가 한다는 말이 이미 당신은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궤변을 시작하죠. 이렇게 새로운 대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화편을 유심히 보면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소피스트들이 degree, 정도를 인정하지 않고 양극화시킨 논법을 구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아적인 논변이라는 것은 그것이 맞건 틀리건 간에 아주 고급한 사회를 담고 있는 것이고 소피스트들은 바로 그것을 익혀서 그것을 못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썰먹는 겁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에게서 논박을 당하는 거죠.

(청중 낭독)

먼저 이것부터 하고 가죠. 소크라테스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무언가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현재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논리학의 제1법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동일률이지요. identity. 그러니

까 이 책은 이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은 이 책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 책이 에우티데모스라는 책이면서 동시에 박홍규 전집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정우가 이정우이면서 동시에 김철수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일률, theory of identity입니다. 가장 논리학의 기본적인 법칙이 이것이죠. 현대에 와서는 이것조차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적어도 동일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현재에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무언가를 안다는 겁니다. 앎의 지자, 아는 자이지요.

아는 자라면 그 사람이 아는 자에 한해서 모르는 자일 수 없는 거죠. 동일률에 따르면요. 소크라테스가 지식의 소유자이면서 소유자가 아닐 수는 없는 거죠. 왜? 모순이니까요. 또 역으로 소크라테스가 무언가를 모른다면 소크라테스는 아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 퀘션은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주장이 그럴 듯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논파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degree도 연관이 되어 있죠. 분명. 엘리아 학파적인 논법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 실체와 속성의 분리이죠.

여기에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편이다. 그렇다고는 도무지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채판을 찍으면서 표지를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달라지는 건가요? 여전히 같은 책이지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것은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 포인트는 그 사물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이정우가 김철수는 아니다. 맞죠. 이정우가 김철수가 될 수는 없지요. 본질적인 면에서.

그러나 제가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머리를 기르면 이것으로 인해 제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체와 속성을 구분한다는 것이 현대 철학에서는 낡은 것으로 보고 한계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고요.

희랍철학에서 보면 실체의 속성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서는. 엘리아적인 논법은 실체라는 심층과 성질이라는 표층이 구분이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면 뭘니까.

심층은 있으면서 성질이 바뀔 수는 있지요, 얼마든지. 에우티데모스라는 소피스트가 바로 엘리아적인 논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아는 한에서는 안다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는 거죠.

물론 그것만 놓고 보면 말이 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라는 한 사람이 있고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을 모른다는 거죠. 엘리아를 등에 업고 이런 소피스트들의 논변과 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변의 가장 전형적인 예의 하나죠.

(청중 낭독)

소크라테스는 그럼 당신이 목공술이나 제련술을 알고 있는지 별과 모래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안다고 하지요. 크스디포스가 화가 나서 뛰어들어서 막 추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물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의 이가 몇 개라는 건 알지만 이 사람들은 다 늙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이를 다 해서 넣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가 다 빠져 있지요.

나중에 나온 것이 틀니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틀니를 끼신 것인데요. 지금은 틀니도 안 하죠. 다 해서 넣으니까요. 이때는 틀니도 없었거든요. 나이 들면 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물학적 지식으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지요. 몇 개가 빠져 있을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당신들이 말을 하면 맞는지 세어보고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믹하게 나서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 회피하죠. 그다음에 유머러스한 대목이 나옵니다. 클레이니아스가 나이도 어리고 순진한 사람이 당하죠. 배움에 대해서요.

그랬던 클레이니아스가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유머러스하죠. 처음에는 당하다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한 수 는 거죠. 지금만 알고 있느냐, 언제든지 알고 있느냐고 묻죠.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애깃거리가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클레이니아스가 던지고 있다는 것이 유머러스한 설정이지요. 플라톤이 이야기를 짜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금 알고 있다가 십 년 있다가 모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십년 전에 몰랐었는데 지금은 안다. 물론 가능하죠. 안다는 것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 엘리아적인 논법을 구사하면 이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아적 세계에서는 시간이란 게 없어요. 오로지 모든 것이 순수논리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엘리아 학파의 논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degree,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우리가 전에 배운다고 얘기할 적에 degree를 얘기했죠.

이 대화편이 코믹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화편이기도 합니다. 엘리아적인 논법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degree를 얘기하지요. 정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존재론적인 사고를 할 적에 degree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사물에는 항상 도(觀)라는 것이 있고 실체와 속성의 구분. 변하는 부분과 실제 성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다음 einai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도 있고 '있다'라는 뜻도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정우가 있다 없다는 문제와 이정우가 머리가 길다 짧다의 문제는 다른 거죠. 그런데 전부 다 einai로 표현되지요. 그러나 전부 다 '있다'로 해석하다 보니 아까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 시간의 중요성과 상기설의 태동

'있다'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체는 그대로 있고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간이죠. 엘리아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이 거의 작동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 모른다 등을 시간을 넣어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도 시간을 넣지 않고 보는 담론들이 있고, 조금 넣어서 보는 것도 있고 아주 중요시하는 담론도 있죠.

지금도 여전히 다릅니다. 엘리아 학파에서는 시간이 아주 없으니까요, 사실 소피스트들을 논박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엘리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두 소피스트들은 언제든지 알고 있다고 하죠. 이 대화편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가 상기설 비슷한 것을 소피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요. 상기설이란 소크라테스의 이론이고 나중에 파이돈에 가면 나오죠.

그 플라톤적 상기설 같은 생각이 오히려 소피스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재밌죠. 우리가 소피스트와 플라톤을 무턱대고 대립시키는 것만이 진실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요.

소피스트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을 플라톤이 발전시키는 것도 많다는 거죠. 사실은 플라톤

자신이 그 문제를 거둬서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톤의 소피스트들에 대한 태도는 감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피스트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나 자기가 소피스트들에게서 배운 것은 잘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감정에는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에 대한 감정이 있지요. 물론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지요. 결국은 그렇게 죽게 만든 지적인 상황은 소피스트들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적개심은 갖고 있어요.

어떤 사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은 영혼이죠. 이것도 똑같은 동일성의 논리입니다. 영혼이란 것이 자기 동일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영혼이 알았다가 몰랐다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란 자기 동일성, self-identity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실체와 존재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 영혼이라는 것이 알았다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의 예도 없이 모든 것을 안다.

심지어는 소크라테스가 어릴 때 안 것도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전에조차 소크라테스의 영혼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천지개벽하기 전에도, 또 역으로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도 그렇죠.

이 얘기가 무엇을 함축합니까. 은근히 윤회설(輪回說)을 함축하고 있지요. 소크라테스가 죽어도 그의 영혼은 남아있고 그 영혼은 여전히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윤회설과 얽혀 있죠. 윤회설을 전제하지 않으면 상기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이런 얘기를 갖고 물음에 답하는 거죠. 클레이니아스의 물음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상기설을 만든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소피스트들이 상기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찌면 상기설의 출발점은 소피스트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도무지 얘기가 안 될 거 같으니까 문제를 약간 돌려 하죠.

이 대화편의 특징은 이야기가 죽 일관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트는 거죠. 일종의 코미디 형식을 갖고 있고요. 실제 코미디 중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기도 하고, 바로 희극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는 거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요. 선한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순형이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물음을 던짐으로써 당신이 만약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모순 명제는 어디

서 배웠냐는 거죠.

모순명제니까 아무데서도 안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소크라테스도 그래, 나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친구가 실수를 했으니 에우티데모스가 나서지요.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청중 낭독)

▲ ‘아버지’에 관한 논쟁

사람이 하도 많이 나와서 어지럽죠? 이것도 사실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소크라테스와 파트로클레스가 형제인데, 아버지가 같지 않죠. 말하자면 이복형제이지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소프로니쿠스이고 파트로클레스의 아버지는 카이레테모스이지요.

그러나 카이레테모스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아니죠. 아니므로 소크라테스의 아버지와 다르다. 다르다에 방점을 찍어야 하죠. is not인데요. 소크라테스가 돌이 아니라면 돌과 다르듯이 카이레테모스도 아버지와 다르면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아닌 것으로 치환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다’와 ‘있다’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무조건 ‘있다’로 보면 “나는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카이레테모스가 아버지라면 소프로니쿠스는 아버지와 다르게 되고 따라서 아버지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아버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크스디포스는 한술 더 뜹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아버지가 아님은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금이 금이면서 금이 아닌 것이 불가능하며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이건 맨 앞의 논리죠. 어떤 사람이 안다는 것은 알면서 모를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닐 수 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아버지이지만 누구의 아버지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있다’로 완전히 해석해버리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닐 수 있냐고 하지요. 모순을이지요.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의 자기 동일성을 지켜야만 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죠.

이것과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맹자에서도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고자가 성(性)은 생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morality입니다. 도덕성. 생이라는 것은 생일 뿐이다. 이때 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각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식색(食色)이지요.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적나라하게 보는 식색이지요. 그것이 곧 성이죠. 생과 구별되는 moral으로서의 성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인(仁)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애욕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닌 애욕의 차원으로서의 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과 성을 동일시 해버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나 하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백(百)은 백이라는 거죠. 하얀 것은 하얗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예를 들죠. 제가 지금 완벽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옥과 돌, 소가 다 하얗다면 옥이 돌이고 돌이 소냐고 물어봅니다.

아주 비슷한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요. 만약 다 색이 희다면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논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동일한 사람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아버지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버지이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거죠.

에우티데모스의 논리는 더욱 철저해져서 심지어는 여러 사람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과 같은 여러 동물의 아버지이며 그의 어머니도 똑같이 모든 존재의 어머니가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난장판 수준으로 갑니다. 이러한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반문하는 것에 대해 역시 동일한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에우티데모스는 어린 소, 어린 개, 어린 돼지가 형제가 된다고 크세디포스가 반문하자 당신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같으니까 당신은 소, 돼지, 개의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성격을 잘 보여주죠. 에우티데모스는 logic으로 상대방을 놀리는데 크세디포스는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논리에 논리로 맞서는 것이 아니지요. 논리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죠.

성격묘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의 논리는 동일성의 논리니까 당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속된 말로 갖고 노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이 정도쯤 되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슬랩스틱 코미디 썸 되는 거죠.

(청중 낭독)

계속 난장판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논의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동일성이지요. 그 얘기는 좀 건너뛰고요.

▲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

115쪽을 보죠. 이 두 사람의 소피스트들이 설전을 벌이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죠. 이렇게 진지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왜 웃느냐고 하죠. 이런 논쟁이 소크라테스가 볼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얘기하는 방식은 거칠지만.

소크라테스의 이 말에도 디오니소도로스가 탄죽을 거는 거죠. 당신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느냐고 묻지요. 나는 이 논쟁에서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하자 그것이 미와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묻죠.

이 물음을 잘 봐야 합니다. 만일 아름다운 것과 미(美)라는 것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beauty이죠. 이데아론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the beautiful, 아름다운 것들과 the beauty가 구분되는 거죠.

참 재밌죠. 플라톤적인 문제의식을 지금은 디오니소도로스가 제기하고 있죠. 멋진 산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노을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나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데아론의 제시인 거죠. 오히려 그것을 지금 소피스트가 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들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아니냐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플라톤 이데아론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그가 미 자체와 다른 것을 보았지만. 소크라테스가 본 것은 미 자체가 아니다. 아름다움 자체는 아니죠. 아름다운 것들을 본 거죠.

멋진 말을 봤다거나 노을을 봤다거나. 여자를 봤다거나. 미 자체를 본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낱말의 아름다운 것들에는 아름다움이 임재한다는 거죠. 이 임재라는 말에는 서양 형상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되는데요. 여기에 백합꽃과 같은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 신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아름다운 백합꽃을 보아라. 제가 옛날에 성가대였어요.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 백합은 흰데요. 이 백합과 신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를 터놓으면 신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지요. 신과 피조물 사이에 사다리를 놓으면 피조물이 기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신으로선 곤란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을 완벽하게 잘라 버리면, 신과 이 세계를 완벽하게 잘라 버리면 우리는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parousia라는 말이 있죠. 신은 어디까지나 실체고 꽃은 개별적인 사물이죠. 어디까지나 범접할 수 없지만 이 ousia의 뭔가가, 신 자체는 아니지만요. 신이 여기에 있으면 곤란하지요.

신의 무언가가 내려와서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grace, 은총(恩寵)이지요. 이런 논리를 통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parousia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기독교가 나중에 플라톤을 인용해서 만든 겁니다.

▲ 성리학과 형상철학의 공통점

성리학과 서양 형상 철학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원래 동양 철학과는 좀 다르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불교의 영향이 크지만 복잡한 문제입니다. 주자 등이 얘기하는 태극은 무입니다. 기(氣)는 유(有)이지요. 그 무(無)라는 logic이 불교에서 왔다고 보지요.

서양에서 말하는 형상이란 것은 무가 아니라 꼭 찬 존재입니다. 형상이란 것이 재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지요. 질료성을 떠나버린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무지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리(理)도 비슷합니다. 성리학의 리도 불교의 개념을 끌어왔지만 무한한 생명력으로 끝없는 것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가 말하는 형상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사되는 논리는 다르지요.

서양 형상철학과 성리학은 굉장히 유사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불교와의 관계를 갖고 들어가면 얘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얘기해 봐야 하는데요. 제가 불 적에 태극이나 리 같은 것은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무보다는 노자가 말하는 무와 훨씬 가깝습니다.

들뢰즈가 말하는 잠재성과 가깝죠. 제가 그 책을 못 읽어 봤는데요. 태극도를 불교가 아니라 도가 선사들에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팔선들인데요. 그 그림 중의 한 명이 여자지요. 그 중의 두 사람이 태극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교가 들어가면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비교해 보면 미묘한 문제라서 흥미롭습니다. 그 얘기는 언젠가 하기로 하고요.

▲ 임재, 이데아론의 초기 개념

이 문제를 잘 보면 아직까지 플라톤이 이 임재라는 말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parousia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데아론을 소박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옆에 있다는 말을 쓰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방입니다. 이 사물은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신의 그 무언가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플라톤이 mimesis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아직까지 플라톤이 이데아설을 만들려고 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린 보통 어떤 화가의 원숙한 시기의 그림을 보는데요. 예컨대 그 사람이 열두 살 때 그림을 보는 거죠. 마치 원숙기의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 듯 말 듯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현장을 보고 있는 거지요.

원숙한 플라톤을 이해하기 위한 이데아론이 아주 서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참 재밌잖아요. 에우티데모스가 그 말을 갖고 책을 잡는 거죠. 소 옆에 있으면 소가 되느냐는 거죠. 일자가 타자 옆에 있으면 타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 소크라테스 자신도 당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비존재의 문제에 혼란을 느낀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없다는 것의 관계이지요. 또 ‘이다’까지.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죠. 이 문제가 명료하게 해결되는 것은 말년의 소피스테스편이죠.

그 대목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얘기들은 비슷한 얘기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될 거 같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결론을 읽어봅시다.

◆ 2교시: 결핍과 동적 목적론에 대하여

▲ 이론과 행동의 딜레마

(청중 낭독)

첫 번째 얘기했던 배움의 문제와 소피스트들이 엘리아 학파들을 배경으로 깔고 논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 degree의 문제라든가 einai의 문제라든가 실체 성질의 구분 문제 등이 나오죠.

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굵직한 것들이 깔려 있죠.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엘리아 학파에 따라서 ‘이다’와 ‘있다’의 구분이라든가 실체와 성질의 구분이라든가, 시간의 중요성 등을 다 무시하고 존재의 모순을,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란 말이 나오죠. 중요한 말입니다. 존재도 아니고 무도 아니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있는데 모자라는 거지요, degree의 문제지요. degree의 사유로 보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엘리아 학파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맨 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하는 것을 행위의 상태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진위를 추상적인 논리공간에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꿔 놓음으로써 현실감 있는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청중 낭독)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 라는 문제, 동일률의 문제. 이분법이 아니라 인간은 걸핍되어 있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고쳐나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갈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프로타고라스편을 봤을 때처럼 지혜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등치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죠. 정치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지혜만이 선하다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무리를 동반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소크라테스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청중 낭독)

두 번째가 존재와 인식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런 문제의 한 과정에서 최고의 지식이 정치술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정치술이 인간을 구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정치술을 지닌 사람이 있어도 실제 전 국민들이 선택하지는 않고, 실제 정치술을 지닌 사람이 증가하여도 선택한 사람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술을 지닌 사람이 증가해도 선택한 사람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명제.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렇지 않은데요. 예컨대 국민이 정치의식을 갖고 그 수가 증가하면 선택한 사람이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마 그리스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피상적인 정치술만 증가하고 정말로 선택한 사람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요.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체제로 봅니다. 사람들의 번덕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섯 가지를 얘기하죠.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왕정, 금권 정치, 명예정치, 민주주의, 참주가 있을 겁니다.

민주정치가 4위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아테네가 무너진 황혼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긍정적이고 밝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치술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좋죠. 정치술을 아는 한에서 얘기할 때죠. 그런데 이 맥락은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aporia가 있는데요. 지식과 행동력을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인냐는 거죠. 지식이 있어도 행동력이 없으면 기능이 없고. 학을 위한 학은 외적인 행동력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립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인식하려면 그 상황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내 감정이 변화하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죠.

행동과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딜레마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에 들어서 행동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가 어렵고 또 내가 그것을 인식하려고 장에서 발을 빼서 바라보면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행위와 인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마르크스가 시위에 만날 참여했다면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올 수 없었겠지요.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날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앉아서 책을 판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혁명을 한 사람이 아니라 혁명의 책을 쓴 사람이지요. 이것은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위대한 행동가는 이론을 할 능력과 시간이 없는 것이고 이론을 하려면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레닌 같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죠. 국가를 세우면서 책을 30권정도 썼으니까요. 이런 딜레마 같은 것이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무언가 학문적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하면 현실에 영향력이 없지요. 그 어려운 것을 누가 읽겠어요.

반면 영향력이 크게 하려면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칸트 같은 사람은 철학사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순수이성비판을 읽고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둘 다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말일 뿐 어려운 것이지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자신도 미궁에 빠지는 거죠.

(청중 낭독)

▲ 결핍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요. 모순은 존재와 무가 구별되는 한계선에서 성립한다. 모순된다는 것은 존재와 무가 명확히 갈려서, 한쪽은 명확히 존재만 있고 한쪽은 명확히 무만 있는 겁니다. 그때 절대 모순이 성립하는 거죠.

만약 존재는 존재이고 무는 없다면 무는 저절로 없어지므로 존재와 무의 한계선이 있을 수 없다. 한계선이 있다는 것은 존재를 전제하는 거죠. 존재가 존재이며 무는 없다면,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 이거죠.

존재는 존재이며 무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무는 저절로 없어지므로 한계선은 있을 수 없다. 없는 것과 있는 것 사이에 한계선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 것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 만약 한계가 있다면 무를 존재와 동등하게 취급한 것이다.

만약 이것과 이것을 붙여놓고 한계를 얘기한다면 둘 다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존재가 없다면 무언가 두 개가 하나로 붙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무는 아예 없는 거니까요.

무를 존재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서 모순이 나온다. 파르메니데스의 세계는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소크라테스의 세계는 구멍이 뚫린 세계죠.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은 모르고.

이런 세계라고 한다면 파르메니데스의 세계는 완전히 칠해지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죠. 그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그러나 무를 또 하나의 존재로, 무를 어떤 존재로 만듦으로써 모순이 나오며 이때 존재가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런 있음과 없음 사이의 경계가 생기게 되죠. 무가 없다면 존재만 있게 되며 존재의 유한성을 뜻하는 한계가 없다.

만약에 무란 것이 없고 존재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뚫린 것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존재의 유한성을 뜻하는 한계가 없으므로 존재와 무에는 존재의 유한성, 존재가 무에 의해 부정된다.

존재와 무의 어떤 한계, limit가 있다는 것은 존재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존재만 있다면 존재에는 어떤 제한도 없죠. 그러나 존재가 어디선가 끝나는 한계, limit가 있다는 것은 제한받고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거죠.

무의 존재성은 바로 존재의 무와 성립한다. 무의 존재성. 무도 어떤 의미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있는 그 존재성은 존재가 무가 되는 그 대목이죠. 구멍이 뚫려있는 그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백퍼센트 있고 없음은 불가능하다는 소피스트의 모순이론을 배격하는 거죠. 그

리고 어떤 이론이 나오니까. 결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 얘기를 안다는 것에 적용해보죠.

만약에 파르메니데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거죠.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앎의 한계가 없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알지만 여기서부터는 모른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앎의 유한성이죠.

존재와 무를 양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의 모순이론으로 가지 않고 무라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퍼센트 존재나 무가 아니라, 아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의 한계도 있는 겁니다. 무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핍이라는 거죠. 이런 구멍들이 결핍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럼 결핍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바로 dynamis, 가능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만이 가능한 세계는 양상론적으로 뭐만 있는 세계입니다. 존재이지요. 양상론적으로 말하면 actuality만 있는 거죠. possibility가 없는 거죠. 그냥 완벽하게 있으니까요.

가능성이란 뭐니까. 여러분들이 possibility라는 말을 들으면 시간을 넣어서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공식과도 비슷한 건데요.possibility란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가능성이란 것은 지금 actual하지는 않지만 actuality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회랍사람들이 말하는 dynamis는 possibility보다는 virtuality와 가깝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백퍼센트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다.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존재만 강요하고 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도 어떤 의미에서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에 한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쉬운 말로 하면 결핍입니다. 결핍이란 우리 삶이 백퍼센트 존재도 아니고 백퍼센트 무도 아니고 존재가 유한하게 있고 무도 어떤 의미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가 있죠. 양상론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actuality는 현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고 possibility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죠.

그 다음이 뭐니까. necessity죠. 필요는 언제라도 그런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이고 미래에 그리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modality, 양상입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 적인 세계에서는 actuality밖에 없지요. possibility가 있을 수 없어요. 왜? possibility는 무에서 존재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생기는 거잖아요. 파르메니

데스에게는 그게 없어요. 모든 것이 현재예요.

역설적으로 시간은 없는 겁니다. 현재만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라는 것도 인정하고 무가 존재로 가기도 하고 존재가 무로 가기도 한다는 생성을 인정하면, 가능성이 나오죠.

이 세계라는 것은 즉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이 대목이 플라톤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결정적인 출발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존재와 무의 한계에서 부정되는 무 대신에 동시에 존재도 무도 아닌 것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존재라고 하기에는 actual한 존재라고 하기에는 결핍되어 있고 완전히 무라고 하기에는 가능성이 있고, 변해가면서 채워져 가는 possibility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존재도 무도 아닌 것은 무규정적이지만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존재도 무도 아닌 것으로부터는 그것이 지닌 연속성 때문에.

연속성이란 말도 잘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의 세계로 가면서 결핍이 채워져 가는 가능성의 세계가 연속성의 세계인 거죠.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운동과 다가 성립할 수 있다.

다는 일정한 관계에 의해 성립하며 일정한 법칙에 따른다. 그러나 지식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식은 반드시 사물에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

법칙이란 우연성의 배제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연이란 존재와 무의 한계에 성립한다. relation이란 게 없어지는 거죠. 관계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세계에선 존재와 무가 우연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와 무가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개가 우연히 붙어 있는 겁니다. 우연이란 조어로 동사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의 모순의 논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존재와 무의 한계를 동시에 존재도 무도 아닌 것으로 대체하고 이것을 통해서 존재가 성립한다는 것을 시사했을 때, 존재와 무의 우연성도 회피하는 것이다.

▲ 동적 목적론이란?

그리하여 그는 한편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가는 동적 목적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dynamic한 teleology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스 형상 철학은 완전히 목적론인데, 그것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맥락입니다.

행위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존재 대신에 일정한 관계로 맺어진, 즉 서로 붙을 일이 전혀 없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지어져 있는 다의 존재를 주장하는 겁니다.

행위는 동적 목적론에 의하여 끊임없이 결핍에서 충만으로 간다. 그게 바로 좋음입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지요. 선, 좋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한편 행위는 존재의 일정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선은 존재의 관계 맺음과 일치하는 지식의 지도로 실현된다. 그렇게 possibility가 충만으로 나가면서 동적 목적론으로 실행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고 지혜, sophia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을 충만시키는 행동이 없거나 지식 대신에 무지가 행위를 인도할 때, 결핍을 충만시키는 행동이 없다. 흔히 얘기하는 햄릿형 인간이죠. 그 다음에 지식 대신에 무지가 행위를 인도할 때, 흔히 말하는 돈키호테의 경우지요.

그때 행위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한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굉장히 긴 문단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어떻게 엘리아 학파와 소피스트들을 극복하고 dynamis의 철학을 만들어 가는가의 핵심적인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려워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반복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의 책을 더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동과 지식이 일치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될 수가 없죠. 지식이라는 것은 정적이고 법칙적인 건데 행동이라는 것은 동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존재의 정적인 규정과 동적인 규정은 존재와 무의 한계에서도 성립한다.

왜냐하면 모순은 존재와 무의 한계가 동적으로 우연성은 정적으로 규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통찰이죠. 유한한 것은 두 가지가 어찌다가 붙은 거죠.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서 부딪치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정복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가장 좋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주역의 사상은 좀 다르지요. 주역은 하나가 하나를 완전히 누르는 것도 아니고 헤겔처럼 하나로 지향해 가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이 주역을 헤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향이 아니라 갈마든다고 하지요. 모순이 해결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모순은 존재와 무의 한계가 동적인 것이고 우연은 정적인 것이다. 이런 통찰은 정말 대단한 통찰 같아요. 일류 대가의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모든 것을 무로 돌린다는 말은 허무주의와 혼동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피스트들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모든 것을 존재화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모든 것을 무로 보낼까 하고 생각해 보면 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구별도 없는 거죠.

이때의 무란,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별도 없는 겁니다. 어떤 구멍도 없이 다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무와 같은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무와 동일한 겁니다.

헤겔도 논리학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소피스트의 허무주의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맨 뒤의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뒤에 텍스트를 읽어나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